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김동규 베드로, 김보미 로마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 주 미사 독서: 김지원 카린, 김주형 엠마누엘	교무금 \$40
금주 미사 복사: 우상인 사비나	봉헌금 \$245
다음 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2 차헌금 \$70
금주 미사해설: 윤보연 소화데레사, 우명희 카타리나	매일미사 \$35
다음주 미사해설: 조성익 토마스 모어, 조은경 수산나	합계 \$390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금주 봉헌봉사:
회 계: 김정기 토마스 아퀴나스, 심윤희 베르나르도	김지원 카린
친교실 정리: 대학원 구역	다음주 봉헌봉사:
	최고은 소피아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사제관 (5월 18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오후 2시 45분 성당친교실 (5월 12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8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5월 11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넷째주 토요일 미사 후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미사 후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미사 후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농부는 겨울이 지나면 포도나무에서 죽은 가지를 잘라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소용없는 가지들을 쳐 냅니다. 이때 잘린 가지에서 수액이 몇 방울 흘러내리는데 이를 포도나무가 눈물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시면서 가지들이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가지가 살아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이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그 나무를 풍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부터 생명을 이어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머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기심, 욕심, 교만 등과 같은 필요 없는 가지들을 쳐 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랑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 바오로
(608) 628-7977

부활 제 5 주일
생명주일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년 5월 5일

<제 1 독서> 사도행전 9,26-31

<제 2 독서> 요한 1 서 3,18-24

화답송

◎ 주님, 큰 모임에서 드리는 저의 찬양도 당신에게서 오나이다.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
○ 온 세상 끝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 민족 모든 가운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자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흠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
○ 내 영혼 주님 위해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다가올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져,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로움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복음 15,1-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 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35 봉헌:132 성체:163 파견:244



내 안에 머물러라

장세윤 모세 신부 영흥 본당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찬미 받으소서!

성모성월을 맞이하는 첫 주일, 성모님의 신앙은 마치 이 아름다운 계절과 닮아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5 월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셨던 성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님의 삶 안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농부이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고자 언제나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르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셨습니다. 그 열매는 하느님의 말씀에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시는”(필리 2,8)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의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길 바라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요한 15, 4)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 혼자 힘만으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주님과 떨어져 맺는 열매는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요한 15,8 참조)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이루었다는 교만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하느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 신앙은 하느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자신을 하느님처럼 되게 해주겠다는 창세기 뱀의 유혹에 또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지금 그 뱀을 당신의 발로 짓밟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셨던 성모님의 겸손과 순종에서 흘러나온 성령의 힘으로 힘껏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의 계명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1 요한 3,24)이라는 제 2 독서의 말씀을 가슴 깊이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해라’, ‘~하지 마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자신을 하느님 앞에 끊임없이 낮아지게 하는 겸손과 순종으로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는 언제나 성령의 힘이 함께 하시므로, 제 1 독서의 사울이 주님을 박해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는 모습”(사도 9,27-28)이 되었듯이, 우리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빵의 형상으로 미사 전례를 통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자 하십니다. 이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무슨 열매를 맺으시렵니까?

† 공지사항

1. 5 월 바자회 대신 기부금 모금 진행

Year	Month	수입	지출	차액	총 누계	특이사항
2011	누계	\$39,731.93	\$43,643.89	-\$3,911.96	-\$3,911.96	
2012	1	\$4,994.22	\$4,795.13	\$199.09	-\$3,712.87	피정
	2	\$2,781.49	\$5,125.96	-\$2,344.47	-\$6,057.34	St. Paul
	3	\$2,621.16	\$2,531.17	\$89.99	-\$5,967.35	
	4			\$0.00	-\$5,967.35	
	5			\$0.00	-\$5,967.35	바자회

- 기부금 목표액 : \$4000 이상, 각 구역별 목표 금액을 설정
 - 모금 기간 : 5 월 5 일 부터 26 일 까지 3 주간
 - 모금 방법 : 각 가정/개인이 무기명 봉투에 기부금을 넣고 밀봉하여 구역장에게 전달
2. 홍보담당 후임 사목위원 선임
- 조남석 베드로
3. 5 월 독서 및 간식 청소 구역: 대학원 구역
4. 2012 년 여름 캠프
- 일시 : 6 월 29 일~7 월 1 일 (2 박 3 일)
 - 장소 : Pine Lake

부활 삼중기도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